

“산불피해 함께 극복”... 재계, 성금·물품 등 현장지원

주요 그룹, 잇따라 성금 전달
차량·가전제품·구호키트 지원도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CJ그룹, 롯데그룹 등 재계가 경남, 경북 등 최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있다. 지난 21일과 22일부터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발생한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 탓에 인근 지역으로 빠르게 번지며 3000여명이 넘는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이날 경상도 및 울산 지역(경남 산청군, 경북 의성군,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현장 복구와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성금 20억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현대차그룹은 성금과는 별도로 피해 지역에 세탁·방역 구호차량 등 6대를 투입해 세탁물 처리와 신속한 방역 대응을 돕고,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를 투입해 피해 주민과 자원 봉사자들의 휴식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이 기존 소방청에 전달한 소방관 회복지원차량 4대가 피해 현장에 출동해 소방관들의 안전한 휴식을 도울 예정이다.

포스코그룹도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포스코홀딩스를 중심으로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퓨처엠, 포스코D



정인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박정원
두산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X가 동참해 20억원의 재해 성금을 마련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탁하기로 했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 등 주요 사업 회사 본사가 위치한 경북 지역 이재민을 위해 위생용품, 이불, 비상식량 등 생활필수품으로 구성된 ‘산불 피해 주민 긴급 구호키트’를 제작해 지원한다.

LG는 산불 피해 지역의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20억원을 기탁했다.

LG 계열사들도 산불 피해 주민 돕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LG전자는 임시대피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등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를 입은 가전제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기 위한 이동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LG생활건강은 이재민들을 위해 5억원 규모의 칫솔, 치약, 샴푸, 바디워시 등 생활필수품을 지원할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경남 산청·하동군, 경북 의성군 일대의 구호활동 지원을 위해 배터리 충전 차량을 운영하고, 임시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원활한 통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SK그룹도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20억원 상당의 성금 및 구호물품을 전달한다. SK 관계사들은 이재민들 위한 구호 텐트와 매트, 인터넷TV, 와이파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휴대폰 충전기 및 보조 배터리, 멀티슈 등을 비롯한 구호 물품을 지원 중이다.

두산그룹은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 주거시설과 생필품 지원, 가옥과 시설 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성금 5억원을 기탁했다.

롯데그룹은 피해를 입은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해 성금 10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롯데유통군은 지난 25일 생수, 컵라면, 에너지바, 마스크 등 17종 생필품 1만 8000여 개 상품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물품을 지원했다. 울산광역시 소재의 롯데정밀화학, 롯데칠성음료

등 13개 롯데 계열사들 역시 산불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생수 2만 병을 전달할 예정이다.

CJ그룹은 경상도·울산시 특별재난 지역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자 5억원의 성금을 기부한다.

주요 계열사별로는 구호물품 지원 및 임직원 봉사단 참여 등으로 힘을 보태고 있다. CJ제일제당은 햇반, 비비고 국물요리 가정간편식(HMR), 맛밤을 포함한 간식류 등 총 1만여 개의 구호 물품을 기탁했으며, CJ푸드빌은 뚜레쥬르 빵과 음료수 총 1만 개를 산불 피해 현장에 긴급 지원했다. CJ올리브영도 1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기부로 구호에 참여했다.

에이스침대 안성호 대표도 산불 피해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성금 5억원을 쾌척했다.

에이스점원은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을 기탁하며 이재민의 신속한 일상 복구에 써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국토요자동차, 아주대 장학금 전달

한국토요자동차는 지난 25일 아주자동차대학교에 장학금 8000만원을 전달하고 교육용 차량으로 렉서스 LC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한명석 아주자동차대학교 총장(왼쪽)과 이병진 한국토요자동차 부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토요자동차



대상, '서울마음편의점' 2.4억 제품 기부

종합식품기업 대상이 '서울마음편의점'에 2억 4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기부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이번 기부를 통해 그룹의 핵심가치인 '존중'을 바탕으로 상생과 나눔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상

KB금융지주 조화준 이사회 의장 선임

KB금융지주는 26일 정기주주총회 종료 직후 이사회를 열고 조화준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 신임 의장은 회계학 박사이자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금융·재무 전문가다.

KB금융지주는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배구조를 선진화하여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흔들림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아모레퍼시픽 “조선민화 만나보세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에서 아모레퍼시픽 창립 80년 기념 고미술 기획전 ‘조선민화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새롭게 수집한 작품과 기존에 실물을 감상하기 힘들었던 작품 등 20개 기관, 개인 소장 작품 100여 점을 전시한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우리 민화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창하 기자 mllee236@

“韓 전자산업 발전에 헌신하신 분”... 각계각층 애도 물결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 별세

김부겸 前 국무총리 등 조문 이어져

고(故)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의 갑작스러운 별세 이틀째인 26일, 정·재계를 비롯한 각계 주요 인사들의 애도가 이어졌다.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삼성전자 전현직 사장단과 업계 관계자들의 조문이 이어졌다.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 사장과 용석우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장 사장은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빈소를 찾아 애도를 표했다. 특히 한 부회장의 직속 후배인 노 사장은 “애 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오늘은



故 한중희 삼성전자 부회장

조문과 유족분들을 위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김기남 삼성전자 고문과 고한승 미래사업기획 단장, 다니엘 오 IR 팀장 부사장, 임성택 한국 총괄 부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임원들도 조문 행렬에 동참했다.

정·재계를 비롯한 외부 인사들의 발

길도 이어졌다. 권봉석(㈜LG 최고운영 책임자) 부회장은 빈소를 찾아 “한 부회장은 대한민국 전자산업 발전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분”이라며 애도의 뜻을 전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장인화 포스코 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김부겸 前 국무총리, 김지형 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등도 방문해 고인을 추모했다. 김 전 총리는 “현장에서 한국 산업을 일궈낸 주역”이라며 “갑작스럽게 타계하신 데 대해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문 첫날인 25일에는 전경훈 디바이스경험(DX)부문 최고기술책임자 사장, 김용관 반도체 부문 경영전략 담당, 한진만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사장 등 삼성전자 주요 임원과 계열사 대표들이 조문했다. 또한 조주완 LG전자 대표,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창범 한국경제 인연협회 상근부회장,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 등도 빈소를 찾았다.

한 부회장은 1988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37년간 TV, 생활가전, 모바일 등 주요 사업을 이끌며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DX부문장과 생활가전(DA)사업부장을 역임하며 삼성전자의 TV 시장 19년 연속 세계 1위 달성을 견인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장례 발인은 27일, 장지는 시안 가족 추모공원이다. /이혜민 기자 hyem@

오늘의 날씨

3월 27일(목)
음력: 2월 28일

수도권 날씨
12 ~ 19°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

해돋이 / 06:25 | 해질 / 18:50

연천 10/19, 동두천 11/19, 가평 11/19, 파주 9/18, 서울 12/19, 양평 12/19, 인천 10/15, 수원 12/18, 용인 12/18, 평택 13/18

백령도 6/9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롯데칠성음료, ‘델몬트주스’ K-BPI 1위

주스시장 ‘골드 브랜드’ 인증

롯데칠성음료 ‘델몬트주스’가 ‘2025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orea-Brand Power Index, K-BPI)’ 주스 부문 1위를 차지했다.

델몬트주스는 치열한 국내 주스시장의 경쟁 속에서도 조사가 시작된 1999년부터 올해까지 27년 연속 부동의 1위를 지켜왔으며, 2008년부터는 10년 이상 연속 1위 브랜드에 주어지는 ‘골드

브랜드’ 인증을 획득했다.

델몬트주스는 ‘주스의 정통성’과 ‘가족의 사랑과 행복’이 연상되는 제품으로 브랜드 인지도 및 고객 충성도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국내 주스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며 대한민국 대표 주스 브랜드로 언제 어디서나 최고의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인사

◆OCI홀딩스 ◇ 승진 △ OCI 대표이사 부회장 김유신

부음

▲최재길씨 별세, 김점이씨 남편상, 최성문(디어스이앤씨 상무)·최성해(시사오늘 경제부장)씨 부친상 = 26일 오전 3시30분, 동래병생병원 장례식장 VIP7호실, 발인 28일. 051-531-7100